



## 지역별 창업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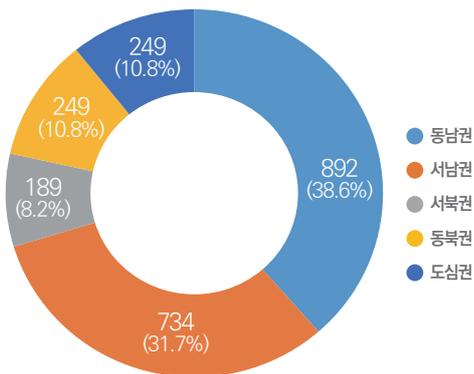
### 1) 5대 권역별

#### I 5대 권역별 창업현황

- 2019년 9월 전국에서 차지하는 서울의 법인창업 비중은 29.6%로 17개시도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했지만, 작년 동월 대비 2.2%p 감소
- 권역별 법인창업은 동남권이 892개로 가장 많고, 그 다음은 서남권이 734개, 동북권과 도심권이 동일하게 249개, 서북권 189개 순으로 활성화

[그림 2] 2019년 9월 권역별 창업법인 수(비중)

단위: 창업 법인 수(비중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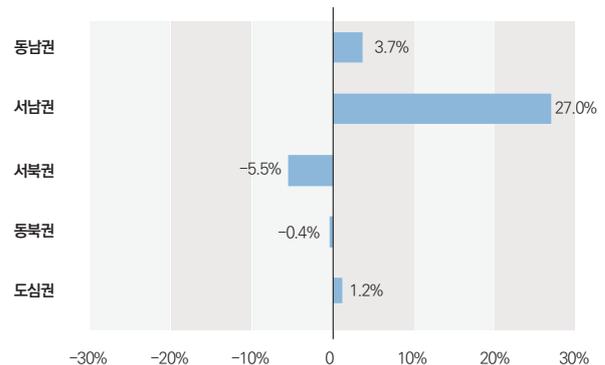


#### I 권역별 증감률(전년 동월 대비)

- 권역별 법인창업 증감률은 서남권(27.0%), 동남권(3.7%), 도심권(1.2%) 순으로 증가한 반면, 서북권(-5.5%)과 동북권(-0.4%)은 감소
- 서울에서 법인창업 비중이 가장 높은 동남권은 (전년 동월 대비) 3.7% 증가
  - 동남권은 금융, 그외기타, 콘텐츠 등 일부 산업에서 (전년 동기 대비) 법인창업이 감소하였으나 도심제조, 관광·MICE, 비즈니스서비스, 도소매, IT융합, 숙박 및 음식점 등 대다수 산업 전반에서 활발한 법인창업 관측
- 9월 법인창업이 가장 활성화된 지역은 서남권으로 (전년 동월 대비) 27.0% 증가

- 서남권은 올해 2월부터 지속적으로 전년 동월 대비 (+)성장세 유지
- 서남권은 창업 비중이 높은 금융, 그외기타, 비즈니스서비스 등의 산업에서 법인창업이 증가했으며, 숙박 및 음식점, 녹색·디자인 및 패션·바이오메디컬, 도소매 등의 산업도 비중은 작지만 큰 폭으로 증가하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
- 도심권의 법인창업은 (전년 동월 대비) 1.2% 소폭 상승
- 관광·MICE, 숙박 및 음식점, 녹색·디자인 및 패션·바이오메디컬, 콘텐츠, 그외기타, IT융합 등 6개 주요 산업에서 전년 동월 대비 20% 이상 증가했으나 상대적으로 사업체 비중이 높은 비즈니스서비스와 금융 등의 산업에서 창업이 감소하면서 도심권의 법인창업은 소폭 증가에 머무
- 법인창업이 감소한 서북권과 동북권의 (전년 동월 대비) 감소율은 각각 -5.5%, -0.4%
- 서북권은 도소매, 비즈니스서비스, 녹색·디자인 및 패션·바이오메디컬 등의 산업에서만 전년 동기 대비 창업이 증가하였고, 나머지 전업종에서 법인창업이 감소하면서 지난 두 달동안 이어진 성장세가 꺾이면서 서북권역의 침체
- 동북권은 IT융합, 금융, 비즈니스서비스 등 일부 산업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산업 전반이 감소세를 나타내며 동북권역의 법인창업 성장률은 보합(-0.4%) 수준

[표 2] 2019년 9월 권역별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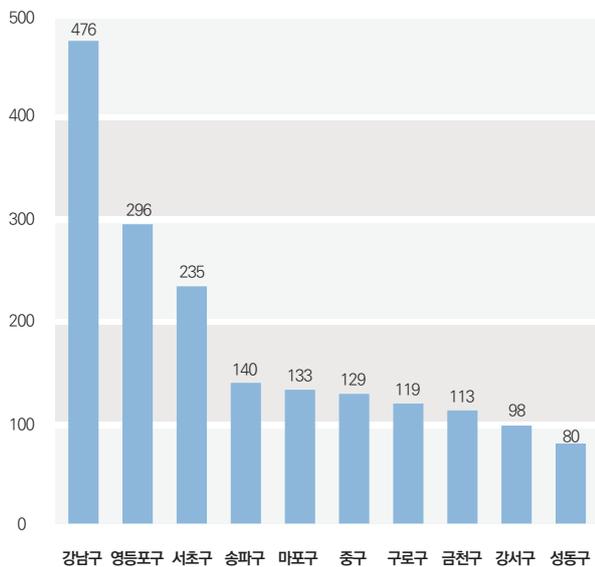
### 2) 자치구

#### I 자치구별 창업현황

- 2019년 9월에도 서울의 자치구별 법인창업은 전업종 강남구에서 가장 활발(단, 금융 제외)

- 자치구별 법인창업은 강남구가 476개(20.6%)로 가장 많고, 그 외 영등포구 296개(12.8%), 서초구 235개(10.2%), 송파구 140개(6.1%), 마포구 133개(5.8%), 중구 129개(5.6%), 구로구 119개(5.1%), 금천구 113개(4.9%), 강서구 98개(4.2%), 성동구 80개(3.5%) 순으로 창업법인 수 상위 10개 지역으로 나타남
- 강남구와 서초구는 전산업에서 상위 5위 이내의 법인창업 수를 나타내며 고른 업종 분포로 활발한 법인창업이 이루어졌으며, 자치구별 법인창업 순위 각각 1위와 3위를 차지함
- 서초구는 비즈니스서비스와 IT융합 등의 산업에서 전년 동월 대비 크게 증가하며 지난달에 이어 자치구별 법인창업 순위 3위를 유지
- 금융은 영등포구에서 법인창업이 가장 활발했으나, 전년 동월에 비하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
- 반면 도소매, 비즈니스서비스, IT융합, 콘텐츠, 도심제조, 숙박 및 음식점업 등 대부분의 산업은 강남구에서 가장 많이 창업했으며, 영등포구에서는 감소한 금융도 강남구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
[표 3] 2019년 9월 창업법인 수 상위 10위 자치구



### I 자치구별 증감률

- 창업법인 수 상위 10개 자치구 중 전년 동월 대비 법인창업이 크게 증가한 지역은 구로구(43.4%)와 영등포구(35.2%)순

- 구로구는 도소매, IT융합 등 일부 산업을 중심으로 서울 자치구 중 전년 동월 대비 가장 높은 비율로 법인창업 증가
- 다음으로 강서구(24.1%), 송파구(16.7%), 중구(6.6%), 성동구(5.3%), 서초구(4.0%), 강남구(1.1%), 금천구(0.9%) 순으로 법인창업이 증가하였고, 반면 마포구(-6.3%)는 감소
- 전년 동월 대비 법인창업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영등포구(77개), 구로구(36개), 송파구(20개), 강서구(19개), 동작구(10개) 순

[표 4] 2019년 9월 창업법인 수 상위 10위 자치구별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

